

백용성 스님의 大覺禪 연구

한태식(보광)*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백용성 스님의 大覺觀
 - 1. 경론상의 대각관
 - 2. 백용성 스님의 대각관
- III. 大覺禪 사상의 정립
 - 1. 산중수행에서 大覺證得
 - 2. 1차 大覺禪 사상 정립기-京城에서 깨달음
 - 3. 2차 大覺禪 사상 정립기-서대문 獄中에서 깨달음
- IV. 大覺禪의 실천
 - 1. 민족독립운동
 - 2. 참선포교의 대중화
 - 3. 大覺敎 운동 전개
- V. 맺음말

* 대각사상연구원장.

© 『大覺思想』 제40집 (2023년 12월), pp.13-54.

한글요약

용성 스님(1864~1940)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각(大覺)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출가 후 대각을 위하여 끊임없는 참회와 화두참구 및 경전의 열람 등을 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 일생 동안 노력한 것이 대각교운동이다. 이러한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을 대각선(大覺禪)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용성 스님의 대각관은 어떠한 것인가. 경론상의 대각의 의미는 부처님을 뜻하기도 하며, 한편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면 용성 스님의 대각관은 무엇일까. 시각, 본각,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대각이라 하고, 이는 자신의 깨달음인 자각(自覺)과 그 깨달음을 사회화하여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각타(覺他)를 구축하는 선(禪)을 대각선(大覺禪)이라고 하였다.

둘째, 용성 스님의 대각선 사상이 정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먼저 산중수행에서 4차에 걸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기본이 된다. 용성 스님은 불자 뿐만 아니라 비불자 심지어 타종교인들에게까지도 전법도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적극성이 있다. 그 1차 계기는 1911년 경성에 입성하여 교회와 성당을 둘러보고,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포교방법에 감탄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를 1차 대각선 사상 정립기로 볼 수 있다. 2차 계기는 1919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타종교인들과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포교방법을 보고 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만약 용성 스님께서 서대문 감옥 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출옥 후 많은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가 2차 대각선 사상 정립기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대각선의 실천이다. 대각선을 대중화, 민중화, 사회화하는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선포교의 대중화이다. 대각선은 누구나 깨닫게 하는 선이다. 그의 포교방법은 참선으로 포교하는 것이었다. 대각선의 화두는 민중대각화사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대각교운동이다. 대각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각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각 처에 대각교당을 세우고, 그 목적을 민중대각화사업(民衆大覺化事業)에 두었다.

따라서 용성 스님은 대각을 성취한 대각인(大覺人)으로 대각사상을 정립

하고, 대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조직화 한 것이 대각교운동이다. 기본 바탕은 대각선이라는 독특한 선 수행과 선포교방법인데 그 목적은 깨달음의 사회화인 민중대각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용성 스님, 大覺. 自覺, 覺他, 大覺禪, 대각사, 대각사상, 대각교운동, 민중대각화사업, 화두, 참선, 참선포교, 華果院.

I. 머리말

진종용성 대종사(1864~1940)의 탄신 160주년을 맞이하여 용성 스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경우,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논자는 평생토록 용성 스님을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유업계승을 위해 노력하면서 용성 스님의 선(禪)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화두였다. 이번 탄신 160주년 기념 세미나 대주제를 “백용성 스님의 大覺禪의 종합적 고찰”로 정한 것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용성 스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대각(大覺)’이다. 그러면 이 대각의 사상적인 연원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용성 스님의 대각을 대각사상과 대각운동으로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논자는 이를 ‘대각선(大覺禪)’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학계에 화두로 던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백용성 스님의 대각관에서 경론상에서 대각관과 용성 스님의 대각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대각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중수행에서 자각적인 대각을 증득하고, 경성에서 이타적인 대각을 증득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산중수행에서 철저한 자각적(自覺的)인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도성에서 타종교의 적극적인 교화활동과 서대문 감옥에서 타종교인들과 같이 옥중생활을 하면서 각 타적(覺他的)인 깨달음은 대각선(大覺禪)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는 대각선의 실천이다. 대각선의 실천은 철저히 민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전의 번역으로 진리를 전하고, 참선을 대중포교의 핵심에 두며, 대각교를 창립하여 조직적인 실천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용성 스님의 대각선(大覺禪)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진척

하고자 한다.

II. 백용성 스님의 大覺觀

1. 경론상의 大覺觀

20세기 초 일제 치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는 새로운 깨달음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각운동(覺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전통불교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한 백용성 스님(1864~1940)은 대각운동을 전개하여 대각교(大覺敎)를 주창하였다. 한편 밀교에 기반을 두고 재가 불교운동을 주창한 회당 손규상(孫珪祥: 1902~1963)은 진각운동을 전개하여 진각종(眞覺宗)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생활불교를 주창한 소태산 박중빈(朴重彬: 1916~1943)은 원각운동을 전개하여 원불교(圓佛敎)를 설립하였다. 이를 근현대불교의 삼각(三覺)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현대기의 불교운동은 모두 깨달음인 각(覺)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용성 스님은 이 삼각(三覺)에 대하여 『각해일륜』에서,

내가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이름과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이 물건을 이름과 모양을 붙여서 말하기를 본연성(本然性)이라고 하기도 하고 묘각(妙覺)이라고 하기도 하며, 묘명진심(妙明眞心)이라고 하기도 하고, 묘원각성(妙圓覺性)이라고 하기도 하며, 진각(眞覺)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원각성(大圓覺性)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이름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일체 상대가 끊어졌으므로 참말로 그려 내지 못할 것이다. 가장 참으로 비었고 참으로 밝은 성품이 신령하고 미묘하여 고금시종(古今始終)과 생멸윤회(生滅輪廻)가 본래 없는 것이다.¹⁾

1) 『각해일륜』(백용성 총서2, 302).

※ 『백용성 대중사 총서』를 『백용성 총서』로 약칭함.

진각(眞覺)은 본연성, 묘각, 묘원각성, 대원각성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상대가 끊어졌으므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이다. 완전히 비었고, 밝은 성품으로 신령하고 미묘하여 윤회가 없는 해탈의 경지라고 한다. 따라서 진각은 바로 참으로 깨달은 경지임을 말하고 있다.

원각(圓覺)에 대해서는 용성스님 『대방광원각경』 번역본에서는,

원각(圓覺)이라 하는 말의 ‘원(圓)’은 ‘모나지 아니하다’라는 말인데, 이 ‘원(圓)’의 곧 ‘둥글다’라는 말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내가 깨친 것이 둥근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이를 깨치게 하는 것이 둥근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구경각究竟覺이 둥근 것이다. … 중략 … ‘깨친 것(覺)’에도 또한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본각(本覺)이고, 또 하나는 시각(始覺)이며, 다른 하나는 본각과 시각이 둘이 없는 구경각(究竟覺)이다. … 중략 … ‘방(方)’은 자타(自他)를 다 잇고, ‘광(廣)’은 자타(自他)가 평등하며, ‘원(圓)’은 구경에 원만하여 지극한 것이고, ‘각(覺)’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이 둘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 정각(正覺)을 말한 것이니 정각이 곧 ‘원각(圓覺)’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자면 무궁무진한 뜻이 있으나 간략히 말한다.²⁾

원각(圓覺)이란 첫째 내가 깨친 것이 둥근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하는 것이 둥근 것이며, 셋째 구경각이 둥근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님을 말하며, 이를 정각(正覺)이라고 하였다. 진각(眞覺)과 원각(圓覺)과 정각(正覺)을 같은 경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불교계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격동기를 맞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용성 스님의 대각선(大覺禪)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각(覺)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각(大覺)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교리

2) 『대방광원각경』(백용성 총서4, 449).

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경전에서는 『잡아함경』에 의하면,

지금 나는 대적정의 석가모니 세존께서 선사유의 미묘한 왕이시고 한량없는 대각을 깨달으시어 인간과 천상을 구원하신 여래에게 공경의 예배를 드립니다.³⁾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무변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계와 천상계를 구원하시는 부처님께 귀의 예배한다는 계송이다. 대각(大覺)은 무량무변한 위없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또 『대승본생십지관경』에서는 “시방제불이 대각을 증득하여 이 법을 닦아 이루지 못함이 없다”⁴⁾고 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대각을 성취하여 진리를 닦고, 모든 것을 성취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각으로 모든 법을 성취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여래의 여실한 깨달음은 상이 없으므로 대각은 보살십지상에 미친다”⁵⁾고 하여 대각은 바로 보살 十地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태지자의 『인왕호국반야경소』에서는,

십지보살은 앞으로도 30생을 더 태어나야 하므로 번뇌가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묘각보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다하였다고 한다. 앞의 십지보살은 30생을 더 태어나야 하고 번뇌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대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지에 태어나 번뇌를 다하였으므로 대각이라고 한다.⁶⁾

3) 大覺 : 『雜阿含經』 권44(대정장2, 320상), “我今敬禮汝 大寂牟尼尊 禪思之妙王 覺無邊大覺 如來天人救”

4) 『大乘本生心地觀經』 권8(대정장3, 327하), “十方諸佛證大覺 無不從此法修成”

5) 『大般若波羅蜜多經』 권306(대정장6, 560중), “如來如實覺爲無相 趣大覺是菩薩十地相”

6)天台智者大師說 『仁王護國般若經疏』 권4(대정장33, 275하), “十地菩薩受第三十生。未名爲盡。今妙覺菩薩不受此生。故名盡也。前三十生未盡不名大覺。”

인도의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십지보살을 대각이라고 하였지만, 중국의 천태지자는 십지보살까지는 대각이 아니라고 하면서 묘각의 경지에 이르러야 대각이라고 하여 대각의 위치를 더 높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십지보살에 이룬다고 하더라도 30생의 윤회를 더 해야 하므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묘각지에 이런 보살은 윤회를 끝내므로 대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에서의 깨달음의 지위와 중국에서 대각의 계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천태지자는 『사염처』에서 “모든 부처님의 대각은 같으며, 구경열반을 말한다.”⁷⁾고 하여 대각을 구경열반에 이런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대각이란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 한다.

둘째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의미한다. 『제석소문경』에서는,

열반 도피안에 이룬 여래대각존께서는 천상인간에 있어서 능히 비길 바 없는 분이사라.⁸⁾

여기서는 궁극의 깨달음인 열반을 성취하신 대각세존은 천상과 인간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임을 찬탄하는 게송이다. 여기서는 대각존(大覺尊)이라고 하여 대각세존을 의미하고 있다. 『대승본생십지관경』에서는,

항하사와 같은 복과 지혜를 원만히 갖추신 천상과 인간의 대각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옵니다.⁹⁾

佛地生盡故名大覺”

7) 天台智者大師說『四念處』 권4(대정장46, 575하), “等諸佛同大覺。究竟涅槃也”

8) 『帝釋所問經』(대정장1, 249하), “到涅槃彼岸 如來大覺尊 於天上人間 無有能等者”

9) 『大乘本生心地觀經』(대정장3, 294하), “敬禮天人大覺尊 恒沙福智皆圓滿”

이는 부처님을 예경하는 계송이다. 천상과 인간계의 대각세존이시고, 항하사와 같은 무량무진한 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구족하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예경의 찬탄문이다. 『금강삼매경』에서는,

대각을 구족하신 세존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니 모두 일승법이
며 이승의 가르침은 없느니라.¹⁰⁾

대각을 성취하신 세존으로 보아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송이다. 대각 세존께서는 일승법을 설하지 이승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보 현보살행법경』에서는,

만약 절복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승경전을 부지런히 독송하고 대각
신을 염불하면 두려움이 없는 힘을 성취하리라.¹¹⁾

마음을 조복 받고자 한다면,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대각을 이루신 불
신(佛身)을 염불하면 두려움이 없는 힘을 얻는다고 한다. 여기서 대각신
이란 세존의 불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각신이 수행이나 신앙의 대상
으로 말하고 있다. 『호국존자소문대승경』에서는,

대각세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상호는 장엄하고 대길상이니라.¹²⁾

대각세존이란 석가모니불을 말한다. 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상호는 32상과 80중호의 대길상을 갖추었으며, 대길상의 모습이라고

10) 『金剛三昧經』권1 (대정장9. 367중) “大覺滿足尊 爲衆敷演法 皆說於一乘 無有二乘道”

11) 『觀普賢菩薩行法經』 (대정장9. 393중) “若欲折伏者 當勤誦大乘 念佛大覺 身力無畏所成”

12) 『護國尊者所問大乘經』권1 (대정장12. 2상) “大覺世尊無等等 相好莊嚴大吉祥”

찬탄하고 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각은 열반의 가장 깊은 뜻이므로 부처님을 대각이라고 한다.¹³⁾

여기서는 깨달음이란 열반의 가장 심오한 뜻인데 이는 바로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한다고 하여 부처님을 바로 대각이라고 하는 불즉대각 (佛卽大覺)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비달마집이문족론』에서는,

대각은 천상과 인간계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이다.¹⁴⁾

즉 대각이란 천상천하에서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므로 이는 부처님이 바로 대각임을 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각은 바로 석가세존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전이나 논서에서는 대각에 대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의미와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말하므로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백용성 스님의 大覺觀

용성 스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모든 이념과 행동을 대각으로 귀결된다. 그는 대각사상을 정립하여 大覺敎와 대각운동을 전개하면서 대각을 사회화하였다.

『십조만유론』에 의하면,

내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옛사람들이 지은 저술과 경·율·논을 널리 찾아보니 불(佛)이라는 하나의 글자를 두 개의 형상자로 사용했다. 첫째, 불

13) 『大般涅槃經』 권32(대정장12, 560상), “覺知涅槃甚深義 是故稱佛爲大覺”

14) 『阿毘達磨集異門足論』 권5(대정장26, 388상), “大覺天人中 名稱最高遠”

자(佛字)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각(覺)이니 [불자(佛字)는 번역하면 각(覺)이다]. 이 최상의 청정한 맑은 하늘과 같으니 [부처님의 법신을 비유한 것이다]. 정변(正遍) [정(正)은 근본지(根本智)니 근본지로 이치를 통달함을 말한 것이고 변(遍)은 사물에 통달한 지혜이니 후득지(後得智)로 차별적 현상에 통달함을 말한다]. 정각(正覺) [맑은 하늘의 해와 달과 같으니 쌍으로 맑은 정각이다]을 성취하여 천상과 인간 가운데 홀로 존귀하신 대성인을 나타내는 것이니 무슨 인격과 신격을 논할 것인가?

오직 부처님만 그러하겠는가? 우리도 그 진심의 체와 그 진심의 성과 그 진심의 용을 대각(大覺)하면 홀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진심의 성, 진심의 용이라고 하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설사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마음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¹⁵⁾

『心造萬有論』은 1921년 9월에 간행된 것으로 옥고를 치른 후 출옥하여 바로 집필하였다. 이 때 부처 불(佛)의 글자에 대하여 불(佛)은 각(覺)이라고 하면서 법신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여 인격이나 신격으로는 논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도 진심의 체(體)와 성(性)과 용(用)을 체득하면 바로 대각의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부처는 바로 깨달음인 불즉각(佛卽覺)을 말하면서 우리도 진심의 체, 성, 용을 깨달으면 대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불을 각이라고 하면서 그 각을 우리도 대각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심조만유론』(백용성 총서2, 171-172), “我が古來로古人의所著와并經律論을廣探한즉佛之一字를二形相字로使用함이라. (一)佛字는凡相의人이 아니라卽覺이시니 [佛字는此를翻釋하면覺이니라] 이無上淸淨 [如淸空하니喩佛之法身也] 正遍 [正은根本智니根本智로達理함을말함이니遍은達事智니後得智로達事함을말함이니라] 正覺 [如淸空中日月하니雙明正覺이니라]을成就해야天上人間에獨尊하신大聖人을標示하심이니무슨人格과神格을論하리오? 오즉佛만그러하리오우리도그眞心の體와그眞心の性과그眞心の用을大覺하면다獨尊한者될지라도. 그러면무엇을眞心性用이라하느뇨? 또一邊으로생각하면設使吾人自家의心을覺하지못할지라도心外에一物도無함을알지라도.”

용성 스님은 『심조만유론』에서 불즉각(佛卽覺)인데 우리도 대각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창하고 있다. 누구나 대각하면 홀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생도 대각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용성 스님은 중생이 대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불국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성 스님이 말하는 대각사상이고, 대각운동이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이 대각교이다.

『팔상록』에 대각의 원조를 일원상(一圓相)으로 표시하면서 불타를 번역하면 대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위의 뚜렷한 모양은 대각의 원조를 표시한 것이다. 이 뚜렷한 모양은 본래 천지와 허공과 만물이 하나도 없어 성현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이다. 일체 이름과 모양이 다 없지만 지극히 크고도 또한 작으며, 지극히 비었고 또한 신령하며, 그 밖의 것은 백천 개 해와 달로서 비유할 수 없다. 이것은 곧 대원각 본연성이므로, 이것을 이름하여 대각의 원조라고 한다. 허공도 이 본연성으로부터 있는 것이므로, 천지와 인류와 만물이 다 이 본연성으로부터 있는 것이니, 본성이 곧 대각의 원조인 것이다.

허공과 천지 만물이 일어남에 그 본연성품은 하늘·땅·사람의 세 가지에 주재되고 만법의 왕이 되는 것이다. 천지보다 먼저 있어 그 처음이 없고, 천지 뒤에 있어 마침이 없으니 형태가 없는 본연성품은 형상이 없는 각의 원조인 것이다.¹⁶⁾

『팔상록』은 1922년에 저술하였다. 여기서 용성 스님은 일원상 ○을 표시해두고 이것이 대각의 원조라고 하였다. 참으로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원상은 본래 천지, 허공, 만물이 하나도 없고 성현도, 범부도, 마음도, 귀신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이름

16) 『팔상록』 (백용성 총서4, 325).

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으며, 텅 비었고, 신령하며, 수많은 달과 해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를 말하여 대원각(大圓覺) 본연성(本然性)이니 이를 대각(大覺)의 원조라고 한다. 모든 것이 이 본연성(本然性)으로부터 생겼으니 이를 대각의 원조라고 한다. 이를 깨달은 분이 바로 불타이며, 대각의 원조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용성 스님의 대각은 바로 불타이고, 본연성품을 깨닫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각해일륜』 대각의 본원심(大覺之本源心)에서는 대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문기를, 우리 교를 대각大覺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意思)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이할(分釋)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제일 크다고 할 것은 하늘과 땅과 허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교에서 크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本然心은 천지 허공 만물을 상대적으로 크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대(對對)가 끊어진 것을 말한 것이고, 각(覺)이라는 말은 깨치는 이도 깨칠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또 하나는, 이 대각의 근본적인 심성을 깨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하며, 스스로 깨닫고(自覺) 남을 깨닫게 함(覺他)이 둘이 아니어서 원만하기 때문에 究竟覺이라고 하며, 또 사람 사람마다 발아래(脚下)에 청풍이 떨치고 날날이 눈앞(面前)에 달이 밝았으니, 이것은 本覺이 사람마다 본래 구족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비록 본래 覺性을 구족했는지라도 깨치지 못한 것은 범부이고, 비록 깨침이 있었는지라도 닦지 못하면 범부이니 어찌하여 그러한가?

비록 본래 금(金)일지라도 백 번이나 풀무에 단련하지 않으면 순금(眞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한번 순금만 되면 다시는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닦아서 一眞心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것을 始覺이라고 한다. 본각과 시각이 구경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究竟覺이라고 하는데, 이상에서 이미 말한 것을 다 깨치면 大覺이라 하는 것이다.¹⁷⁾

『각해일륜』은 1930년에 저술하였다. 여기서 대각에 대해서 두 가지로

17) 『각해일륜』(백용성 총서2, 301).

밝히고 있다. 첫째는 대(大)는 크다는 것으로 우리의 본연심을 말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고, 각(覺)은 이미 본연심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깨칠 것도 깨질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즉 대(大)인 본연심은 이미 우리들에게 구축해 있으므로 깨칠 것조차도 없는 깨달음(覺)이라고 한다. 이를 본각(本覺)이라고 한다.

둘째는 자신도 깨닫고(自覺) 다른 사람도 깨닫게(覺他)함이 둘이 아니어서 원만하기 때문에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구축한 각성(覺性)을 깨닫지 못하면 범부이고 설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닦지 않으면 그도 또한 범부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금이라고 할지라도 금광에서 캔 금은 순금이 아니고 이를 재련하여 순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순금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인 것이다.

즉 대각은 본연성을 자신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이다. 이것이 바로 용성 스님의 대각관(大覺觀)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대각교(大覺敎)이고, 근본적인 사상이 대각사상(大覺思想)이며, 이를 사회화 한 것이 대각운동(大覺運動)이다. 또한 이러한 수행이 바로 대각선(大覺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져 『용성선사 연구』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¹⁸⁾

III. 大覺禪 사상의 정립

1. 산중수행에서 大覺證得

용성 스님의 수행과정과 대각증득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¹⁹⁾

18) 한보광, 『龍城禪師 研究』, 감로당, 1981, pp.39-56.

19)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pp.207-246.

용성 스님은 16살 때인 1879년에는 해인사 극락암의 화월스님을 찾아가 출가하였다. 스님은 16세에 출가하여 23세까지는 깨달음을 위한 철저한 수행을 하였다. 이때를 오도수행기(悟道修行期)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40세까지의 16년간은 오후수행기(悟後修行期)였다고 볼 수 있다. 용성 스님의 생애의 구분이나 전반기의 생애에서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다.²⁰⁾

용성 스님이 출가 후 처음으로 깨달음의 구도행각에 나선 것은 의성 고운사 수월영민(水月永旻:1817~1893)으로 부터 삼보에 대한 예배 기도와 대비주를 염송하여 업장소멸의 방법을 지도받았다. 용성 스님의 초기 수행방법은 돈오돈수적인 방법이 아니고, 업장소멸 후 점수적인 방법으로 자성청정심이 저절로 나타나는 목조선적인 수행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양주 보광사 도솔암에서 업장소멸과 더불어 식(識)이 맑아지면서 스스로 의단을 일으켜 오온개공(五蘊皆空)의 경지를 체험하였다. 이때까지 화두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1차 오도송을 읊었다.²¹⁾

이러한 1차 오도를 한 후 다시 정처 없는 만행의 길을 떠났던 것 같다. 그러다가 금강산 표훈사에서 무융(無融) 선사의 지도로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참구하였다. 이때부터 돈오돈수적인 무자화두 참구에 들어갔다.

다시 21세인 1884년 4월 8일 경에는 다시 보광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육조단경』을 구하게 되었다. 이때 처음 만난 『육조단경』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고, 대각교운동의 중요한 사상적인 이론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각교의 소의경전으로 삼았다.²²⁾

20) 한보광, 「龍城스님의 前半期の 生涯」, 『대각사상』 창간호, 대각사상연구원, 1998, pp.27-50.

21) 『龍城禪師語錄』 권상, p.1 (백용성 총서1, 42), “五蘊山中尋牛客 獨坐虛堂一輪孤 方圓長短誰是道 一團火炎燒大千”

22) 『覺海日輪』 권4, 『육조단경 요역』(백용성 총서2, 412), “龍城이 早年에 발심하여 단포자 일납자로 청천에 뜬 학과 같이 사해팔방에 훨훨 다니더니, 대각응세 이천구백십년 사월팔일에 경기도 양주군 고령사에서 비로소 단

보광사에서 은산철벽과 같았던 의심덩어리를 품고 무자화두를 참구하였는데 보광사 도술암에 온 후 어느 날 홀연히 그 의문이 풀리면서 마음이 공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너와 내가 없으며,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까지도 무너지고 말았다. 모든 법이 여기서는 대적할 수 없는 경지를 체득한 것이다. 이때 2차 오도송을 읊었는데 이는 색과 공의 경계가 무너짐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즉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오온개공의 완전한 경지를 체득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선(祖師禪)의 대표적인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완전히 타파한 것이다.²³⁾

이듬해에는 송광사 삼일암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안거 도중에도 어록이나 경전을 열람하였던 것 같다. 특히 그가 『전등록』을 보다가 “달은 활처럼 휘어 있고, 비는 조금 오는데 바람은 많이 부는구나(月似彎弓 小雨多風).”²⁴⁾ 이라고는 대목에서 문득 홀연히 본래면목이 확 터지면서 환하게 밝아졌다. 이때의 깨달음의 경지로 “日面佛月面佛話와 無字話頭”의 의심덩어리가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²⁵⁾ 그는 송광사에서 두 화두를 타파한 후 22세 때 해인사로 오게 되었다. 이때의 깨달음의 경지를 해인사에 와서 정리하여 3차 오도송을 읊었다. 이 오도송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간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계송에서도 해인사의 풍광을 그대로 표현한 서경시로 보인다.

경을 얻은 후로 항상 이 경으로 선생을 삼아 도를 닦아 오기로 이제 우리 대각교에 정신골수를 삼아 광제증생하기를 목적하고 이 경을 번역하노라.”

- 23) 『龍城禪師語錄』 권상, p.1 (백용성 총서1, 43), “排雲攬霧尋文殊 始到文殊廓然空 色色空空還復空 空空色色重無盡.”
- 24) 『傳燈錄』 권19, 「南嶽金輪可觀禪師條」(대정장51, 356상).
- 25) 『龍城禪師語錄』 권상, (백용성 총서1, 44), “伽耶名價高靑丘 明心道師幾往來 羸羸寄巖疊鱗高 密密柏樹相連靑 無限白雲滿洞鑿 洪鍾轟轟碧空衝 回首看山醉流霞 倚樹沈眼日已斜”

그리고 그 이듬해인 23세 때의 하안거는 다시 송광사 삼일암에서 보낸 것 같다. 그는 해인사와 송광사를 오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록』과 『수심론』에서 밝히고 있다.

금오산에 천년 달이요
낙동강에 만 리 파도로다
고깃배는 어디로 갔는고?
예와 같이 갈대꽃 속에서 잠자더라.²⁶⁾

『수심론』에서는 22세 하안거 때에 송광사 삼일암에서 화두를 타파하고, 해제 후 해인사에 있었고, 아마도 동안거는 해인사에서 난 것 같다. 이때 3차 오도송을 읊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23세에 송광사 삼일암으로 가서 하안거를 지냈으며, 해제 후 낙동강을 지나다가 4차 오도송을 읊게 되었다. 네 차례에 걸친 깨달음을 얻게 된 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미 다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산중수행에서 대각증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 1차 大覺禪 사상 정립기-京城에서 깨달음

용성 스님은 산중에서 4차에 걸친 깨달음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지식들과의 문답을 하였으며, 경전과 어록을 열람하였다. 그런 후 자신만의 반추의 시간을 7년간 가졌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후 1910년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귀원정종』을 저술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용성 스님은 산중에서 수행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자세히 읽었던 것 같다. 『귀원정종』은 상·하 두 권으로 저술하였는데

26) 『龍城禪師語錄』 권상, (백용성 총서1, 47), 『수심론』 (백용성 총서1, 762), “金鳥千秋月 洛東萬里波 漁舟何處去 依舊宿蘆花”

상권은 유교와 도교 등에 대해서 불교적 입장을 밝히고, 하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모순점을 불교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어떤 손님이 나에게 곧이 서교(西敎) 권하기에 내가 물었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 각자 한 파로 갈림으로 인해 자기들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는 것일 뿐이다. 나도 『구약』이란 책을 열람한 적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 ‘6일 사이에 상제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창조자라는 상제는 형상이 있는가, 형상이 없는가?’²⁷⁾

어떤 사람이 용성 스님에게 기독교 믿을 것을 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무차별 전도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용성 스님 같은 큰스님에게도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의 모순됨을 논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보았다고 하면서 문답하고 있다. 창조주에 대한 모순점을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신약성경』도 읽었다고 한다.

『신약전서』 「요한복음」 제1장에서 이르기를,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말씀(道)이 상제와 함께함에 말씀(道)이 곧 상제시니라. 이 말씀(道)이 태초에 상제와 함께하여 도로써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창조된 만물이 말씀(道)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느니라.’라고 했다.²⁸⁾

제목이 『요한복음』에 대한 변론이다. 스님은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다. 따라서 용성 스님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모두 읽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단순히 기독교를 신앙 경지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모순점을 자세

27) 『귀원정중』 권하, (백용성 총서1, 572).

28) 『귀원정중』 권하, (백용성 총서1, 589).

히 논파하고 있다. 한편 『귀원정종』 「45. 천지창조설 비판(創造天地萬物)」에서는 여호아의 천지창조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여호와 상제가 이미 천지조화의 주인이 되어 일체 권능이 자유자재하다 하였고, 모두의 뜻에 맞아 만물을 합당하게 만들어 모든 유정이 함께 기뻐하며 안락을 누리게 하였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사막이 있고 온갖 종류의 더러움이 층만하며, 또 새·짐승·물고기·곤충 종류는 서로를 잡아먹고 살육이 끝이 없어 그들에게 공포를 남겼으니, 그런 상제의 능력으로 왜 이 지경을 만들었는가? … 중략 … 지금 말하는 상제란 자는 그 말과 행동이 대범천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범천왕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교화를 받아 정성을 다해 불법을 보호하는 분인데 지금 칭하는 여호와와는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곧 이는 대범천이 아니다. 타화자재천왕은 위덕이 자재하니, 곧 이는 미주이다. 그렇지만 역시 부처님의 성스러운 교화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을 보호한다. 이를 근거하여 관찰해 보자면 지금 칭하는 여호와라는 자는 또 자재천도 아니다. 무상천이 외도의 하늘이긴 하지만 무상정을 닦아 이 하늘에 태어난 것이다. 지금 칭하는 여호와는 선정을 닦은 일도 없으니, 또 이 무상천도 아니다. 육계 육천과 색계 십팔천의 그 중간에 따로 미궁이 있으니, 가로 세로가 6천 유순이고, 궁궐의 담장이 일곱 겹이며, 일체 장엄이 그 아래 하늘과 같은데, 이곳은 마귀의 권속들이 사는 곳이다. 지금 여호와 상제는 과연 어떤 하늘일까?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²⁹⁾

그는 여호와를 상제(上帝)라고 하였다. 만약 오늘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상제라고 했다면 기독교의 교세는 많이 확장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호와가 자유자재하게 천지를 창조했다면, 모두가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서로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었고, 더러움이 가득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는 상제를 불교에서 찾아보니 대범천왕 비슷하지만, 대범천왕은 불법을 보호하는데 여호와와는 그렇지 못하니 그것도 아니고, 무상천이 외도의 하늘

29) 『귀원정종』 권하, (백용성 총서1, 578-579).

이지만 선정을 닦으니 무상천도 아니며, 미궁도 아니니 나로서는 여호와가 어느 하늘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용성 스님은 『귀원정중』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독교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중에서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지만, 기독교의 교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용성 스님은 48세 되던 1911년 2월 말경에 수도인 경성(京城)으로 상경하였다. 그가 상경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천주교의 명동 성당과 장안의 교회들이었다. 산중불교와는 전혀 다른 이웃종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당시의 한국불교는 동대문 밖에 1899년에 창건한 원흥사(元興寺)가 유일했으며, 오늘날의 조계사인 각황사(覺皇寺)는 1910년에 건립되었다.

그는 만일참선결사회 창립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때에 용성이 하동군 칠불선원의 종주(宗主)로 임명되었다가 세존 응화 2938년 신해년(1911)에 해임되었다. 같은 해 2월 그믐날에 경성에 들어가서 당시에 널리 보급된 것을 특별히 보니, 각 종교의 교당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항상 일요일이 되면 청중들이 교당에 가득 찼다.

오랫동안 자탄하기를, ‘외도의 교당은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수풀처럼 모여드는데 우리 불교는 적막하여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씨(姜氏)라는 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중생 제도를 펼쳤는데 그때 나이가 48세였다.³⁰⁾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가 상경하여 처음으로 관심 있게 살펴본 곳이 성당과 교회였다. 이는 그가 『귀원정중』을 저술할 정도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종교와 불교의 비교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30) 「만일참선결사회 창립기」 『용성선사어록』 권하 (백용성 총서1, 350).

같다. 『귀원정중』에서 밝혔듯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와 불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았다. 논리적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경성에 와서 보니 성당과 교회는 건물도 장엄하고, 광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요일이면 큰 교회에 예배 보는 사람이 가득하고, 교회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이 수풀처럼 모여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술회는 『조선글화엄경』 권12에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도 밝히고 있다.

익년 신해 이월 회일에 경성에 들어와서 시대사조를 관찰한 즉 다른 종교에서는 곳곳마다 교당을 설립하고 종소리가 쟁연하며 교중이 만당함을 보았으나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 우리 선종에서는 한 사람도 선전함이 없음을 한없이 느끼어 탄식하고 즉시 임제선사의 삼스구로 제접함을 본받아 종지를 거량하였을 따름이었다.³¹⁾

이 글은 위의 것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당시의 불교계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직접 교회에 들어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당시는 불교계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약 300여 년만인 1895년에 비로소 승려의 도성출입이 자유로워졌으므로 다른 종교의 교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도성에는 오직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여기에도 신도들이 오지 않고, 포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교계의 안일함과 무기력함에 큰 자각을 하였던 것 같다. 교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지만, 부처님 제자들의 잘못으로 교세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용성 스님이 시중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논자는 용성 스님이 산중수행에서 도시포교와 사회문제에 적

31)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 화엄경』 권12, (백용성 총서6, 449).

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점이 경성에 입성하여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자각이 포교와 사회참여의 각 타로 전환된 것이 용성 스님의 대각선(大覺禪) 사상의 1차적인 정립기라고 본다.

그는 바로 실천하였다. 나 혼자라도 포교를 해야겠다고 원력을 세워 임제선 포교를 신도집에서 바로 시작하였다. 사찰도 아니고 신도집의 방을 하나 빌려서 가정포교부터 시작하였다. 얼마나 다접하게 생각하였으면, 사찰을 건립할 시간조차도 없이 신도집의 단칸방에서 시작하였을까? 나중에는 강영균(康永勻) 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포교를 하였다.³²⁾

3. 2차 大覺禪 사상 정립기 - 서대문 獄中에서 깨달음

또 한 번의 계기는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 대표로 네 번째 서명하고 서대문 감옥에서 다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1차의 대각선의 정립은 피상적으로 기독교의 포교 모습을 보고 대각선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2차의 깨달음은 서대문 감옥에서 타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의 목사들과 같이 옥중생활을 하면서 2차 대각선 사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대각응세 2946년(기미년, 서기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 발표(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의 대표 1인으로 경성 서대문감옥에서 3년 동안 철창생활의 고단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 각 종교의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자의 수효는 대단히 많았다.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고 기도를 하였다. 그

32) 한보광, 「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각사상』 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pp.16-18.

때 내가 열람해 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었고, 한문으로 된 서적은 별로 없었다. 그것을 보고 곧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이와같이 큰 원력을 세우게 된 것이다.³³⁾

용성 스님의 새로운 깨달음은 1차로 경성에 와서 기독교의 교회와 명동 성당에서 그들의 활발한 신앙 활동을 보고 크게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2차는 서대문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다. 1차는 외형적인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면, 2차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내부적인 신앙생활과 조직 및 형태에 대한 깨달음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 대표로 서명하고 3년간의 옥중생활을 하였다. 이때 함께 들어온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천도교, 기독교, 불교인들로 대부분 종교인들이었다. 같은 감옥 속에서 한방에 목사와 스님도 같이 옥중생활을 하였다.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서는 매일 기도와 찬송가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읽는 『성경』이나 찬송가는 모두 한글로 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반면에 불교의 경전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장면은 그에게 큰 자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불교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경성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나 성당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출옥하면 반드시 불교경전을 우리글로 번역해야겠다는 크나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이어서,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가 가을이 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세계의 인류문화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파탄이 그 극에 도달하고 있는 시기에 누가 한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허송하며 공부하겠는가. 비록 수십 년을 공부할지라도 한문을 모두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고,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33)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구」 『조선글 화엄경』 권12, (백용성 총서6, 449).

것이니, 어디에 쓰겠는가. 현대철학·과학·천문학·정치학·기계학 등 모두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 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며, 또 수십 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여 위대한 문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며,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의 글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중·하가 보면 즉시 알 수가 있을 것이라서 보급하기 편리할 것이다. 이에 내가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한 나침반을 만들 것이다.

용성 스님이 대각선 사상을 정립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서로 생존 경쟁하는 시대인데 한 가지 학문인 한문에만 일생을 바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문은 장차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철학, 과학, 천문학, 정치학, 기계학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어찌 한문을 익히는 데만 일생을 바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래서 출옥하면 반드시 동지를 모아서 우리글로 된 경전의 역경을 발원하였다.

또 『三千里』에 기고한 「나의 懺悔錄」에 의하면,

約十餘年前 나는 어떤 일로 해서 監獄에를 가서 約三年間 지냈다. 그때 在監者들 중에는 基督教人이며 其他 여러 敎인들이 있었는데 다른 敎의 敎理는 쉬운 「諺文」으로 펴 많이 翻譯되어 있지만은 佛敎의 敎理만은 아직도 어려운 漢文으로만 남아있어서 지금 사람들에게는 좀체로 알려지지 못할 것이 當然한 일인 것 같아서 크게 遺憾으로 생각하고 監獄에서 나오는 길로 佛經 번역에 着手해서 오늘까지 數千餘 卷을 번역하였었다. 내 혼자서 이 巨大한 事業에 손을 대어서 近七八年間을 腦를 썩여가며 넘어나 골몰하였던 탓으로 지금은 神經이 極度로 衰弱해지고 頭腦가 흐려져서 똑똑한 精神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오죽 죽을 날만이 머지 않은듯 싶으며 最後의 날만을 기두루고 있을 뿐이다.³⁴⁾

34) 「나의 懺悔錄」 『三千里』 8권 12호, 삼천리사, 1936(백용성 총서7,

이 글은 1936년 용성 스님이 입적하기 4년 전에 기고한 자신의 참회록이다. 어떤 형식이나 위의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솔직한 참회록이다. 출가의 사연이 거룩한 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모의 학대에 의해서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성 스님이 감옥에 가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현황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 우리말 우리글로 된 성전을 가져와서 읽고, 기도하며,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그 뜻을 알아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경전을 읽어도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감흥이 없었다. 그래서 출옥하면 바로 경전을 우리글로 번역하는 역경사업에 착수할 것을 큰 원력으로 세우게 되었다. 『상역과해 금강경』의 「오늘날의 사조를 논하다(論今思潮)」에 의하면,

시운이 끊임없이 흘러 사람들의 지혜가 새로워지고 사조가 매일 변하고 있다. 지식智識과 계급도 경제생활에 의하여 경쟁하는 즈음인데 어느 겨를에 한문경전을 읽느라고 오랜 세월을 보내겠는가. 그런즉 한자경전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오물이 되고 말 것이다.³⁵⁾

용성 스님의 역경문제는 대단히 시급하였다. 이 『상역과해 금강경』은 1923년 3월에 저술한 것인데, 시대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누가 불경을 보기 위해 한문만 공부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고 일반 대중은 모두 우리말 우리글로 된 것을 볼 것이므로 한문으로 된 경전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문 경전은 오물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이는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이다. 불경을 오물과 같다고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경의 역경이 필요한 것임을 절감하고 있음의 표현이다.

83-84).

35) 「論今思潮」 『詳譯科解金剛經』(백용성 총서3, 524).

뿐만 아니라 출옥 후 찬불가를 만들고, 어린이 법회를 하였으며, 부인선원도 개원하였다. 용성 스님의 옥중생활은 그대로 당시의 각 종교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선방과도 같았다. 그는 옥중에서 노래도 배우고, 오르간을 치는 법도 배웠으며, 다른 종교의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간이었다. 이것은 신선한 체험이었고 큰 깨달음 이었다. 용성 스님에게 서대문 감옥생활은 대단히 큰 깨달음의 기회였다고 보여 진다. 논자는 늘 말하지만, 만약 용성 스님께서 감옥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용성 스님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자각(自覺)에서 불교의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제시할 수 있었던 각타(覺他)의 2차 대각선(大覺禪) 사상의 정립이라고 본다.

IV. 大覺禪의 실천

1. 민족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중 불교 대표로 참여한 후 그의 독립운동 정신은 입적 때까지 변함없었다. 그의 독립운동은 모든 불사가 독립운동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역경과 저술도 불교중흥을 위한 면도 있지만, 당시 한글 사용을 금지하던 때에 역경 작업에 착수한 것도 항일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의 글이 적절할 것이다.”³⁶⁾라고 했듯이 중국 사람은 중국 글을, 조선 사람은 조선 글을, 일본 사람은 일본 글을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또 일제총독부는 사법개정(寺法改正)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노골화

36)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 화엄경』 권12 (백용성 총서6, 449).

되기 시작하여 1925년 가을에는 31본사 주지회의가 열려서 논의되었다. 이완용을 내세워 31본사 주지 회의에서 대처과계자라도 본사 주지를 할 수 있게 하여 한국불교를 일본의 대처불교로 왜색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선불교의 법령에서 계율부를 없애려고 하는 회의였음이 『동아일보』의 칼럼으로 보도되었다.³⁷⁾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용성 스님은 뜻을 같이하는 비구 127명과 함께 1926년 5월과 9월에 2차에 걸쳐서 건백서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1926년경에는 대처주지금지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된다.³⁸⁾

이와 같은 용성스님의 전통불교회복운동은 일제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 해방된 이후 1954년부터 일어난 불교정화운동의 시원이 되었다. 만약 일제시대에 이러한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연원을 계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민족정신 회복운동이 바로 오늘날 한국전통불교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건백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의 계승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⁹⁾

또한 그는 1927년에 함양에 화과원(華果院)과 중국 연변의 용정에 대각교당을 세우고, 농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선농불교(禪農佛敎)는 사원경제의 자립화 목적도 있었지만, 이곳이 독립자금을 공급하고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⁴⁰⁾ 그가 용정 대각교당에 못갈 때에는 그곳 책임자인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37) 『東亞日報』 1925.10.31., 「참지 못할 一呵 去益悲運의 佛敎界」(下의 三).

38) 高橋亨 著, 『李朝佛敎』, 「第四節 帶妻解禁」(國書刊行會, 昭和 48年), p.953.

39)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민족운동」, 『대각사상』 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 p.26.

40) 한보광, 「백용성스님과 연변 대각교당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pp.59-106.

결인이나 손님들이 오거든 이유를 묻지 말고 약과 옷과 밥 및 돈을 주어라.⁴¹⁾

여기에 찾아오는 결인이나 손님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이 상해(上海)의 임시정부 책임자였던 김구 선생에게까지 보고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해방 후에 귀국한 직후인 1945년 12월 12일 바로 종로 대각사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⁴²⁾

2. 참선포교의 대중화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1911년 음력 2월 말에 경성에 와서 교회와 성당을 살펴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그들의 건물에 장엄하고, 일요일이면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함이었다. 그러나 불교계는 오직 각황사 하나만 있었으며, 이곳마저도 신도가 모여들지 않아 적막강산이었다. 이에 대해서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이 우리 선종에서는 한 명도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 즉시 임제 선사가 삼구로 교화한 것을 본받아서 중지를 거량하였을 따름이었다.⁴³⁾

포교의 위기감을 느낀 용성 스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포교 할 것인지

41) 한보광, 『龍城禪師研究』, 甘露堂, 1981, p.90.

42) 김구 선생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대각사를 방문하여 용정의 대각교당과 서울의 대각사에서 독립자금과 지원을 하였던 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이때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의 봉영회 요인들이 대각사를 방문한 사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백용성 총서7, 736).

43)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 화엄경』 권12 (백용성 총서6, 449)

고민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포교방법을 찾아본 결과 지금까지 수행해온 참선에서 찾았던 것 같다. 특히 임제선의 화두방법인 간화선으로 포교의 방향을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임제의 삼구로 종지를 거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록』의 「만일참선결사회 참립기」에 의하면,

그때에 용성이 하동군 칠불선원의 종주(宗主)로 임명되었다가 세존 응화 2938년 신해년(1911)에 해임되었다. 같은 해 2월 그믐날에 경성에 들어가서 당시에 널리 보급된 것을 특별히 보니, 각 종교의 교당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항상 일요일이 되면 청중들이 교당에 가득 찼다.⁴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성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와 성당이었다. 『귀원정중』을 저술하면서 기독교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박하였으나, 실지로 교회의 장엄함과 그들의 신앙심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요일이면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모습에서 불교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자탄하기를, “외도의 교당은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수풀처럼 모여드는데 우리 불교는 적막하여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 씨(姜氏)라는 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중생 제도를 펼쳤는데 그때 나이가 48세였다.⁴⁵⁾

용성 스님은 교회와 성당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이로 두고 오랫동안 자탄하였다고 한다. 외도의 교당은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수풀처럼 모여드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각

44) 「萬日參禪結社會 創立記」 『龍城禪師語錄』 권하 (백용성 총서1, 351).

45) 위의 책.

황사는 인적이 적막하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그 결과 누구의 잘못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장 거대하고 장엄한 건물을 세울 수 없으니 신도집의 방을 빌려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때 신도는 강씨(姜氏)인데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몇 명이 모여서 가정법회를 보았는데 그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 아마도 이는 가정법회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장안에 소문이 퍼져서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석 달이 채 안 되어 신도가 수백 명이 되어서 다시 시랑侍郎 강영균(康永勻)의 집으로 옮겨 가서 수십 명의 청신사와 함께 참선(參禪)의 법규를 세우고 선종의 교의를 널리 알리었다.⁴⁶⁾

포교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못 되어 신도가 수백 명이 운집되어 강씨(姜氏)집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법회 장소를 옮긴 것이 강영균(康永勻)의 집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강씨(姜氏)집에서는 임제삼구로 포교할 것을 표방하였으나 이는 너무 전문적인 수행방법이다. 그러나 강영균 집에서는 수십명의 대표적인 신도들과 논의하여 참선(參禪)포교를 표방하고 있다. 포교 방법론에 있어서 초기의 임제삼구(臨濟三句)에서 참선(參禪)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출가대중의 전문적인 수행방법인데 이를 대중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포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쉽게 한다면, 염불이나 기도로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수행방법인 참선포교를 표방하였다.

그런데 용성 스님의 원대한 참선포교의 기회가 도래하였다.

이듬해 임자년(1912) 봄에 통도사와 범어사 두 사찰과 지리산의 각 사찰들과 연합하여 대사동에 선종 교당을 새로 설립하고 개설된 교당의 개교

46) 위의 책.

사장(開教師長)으로 피임되었다. 포교한 지 3년 만에 신도가 3천여 명이나 되어서 이로부터 경성에 비로소 ‘참선’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하루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비유해서 말하면 수원지가 완전히 견실해야 도도하게 흐르는 긴 강줄기가 만 리에 물결치는 것과 같이 우리 선종 역시 그와 같다. 선종의 본사는 청정한 산간에 건립하여 도인을 양성하고, 선종의 포교당은 각 도시 안에 설치하여 천하의 대중들이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⁷⁾

조선불교를 일본 조동종(曹洞宗)과 연합하려는 원종(圓宗) 문제로 불교계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조선불교가 임제종임을 내세우는 저항운동은 통도사, 범어사, 송광사를 비롯하여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선종교당의 설립을 하게 되었다. 이때 용성 스님은 개교사장(開教師長)으로 피임되어 포교사로 설법을 하였다. 이때 한용운은 주무로서 총무역할을 하였다.⁴⁸⁾ 이때 처음으로 참선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용성 스님의 포교는 참선포교라고 할 수 있다.

포교한 지 3년 만에 신도가 3천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용성 스님은 선종의 본사는 산중에서 출가수행자를 중심으로 도인을 양성하고, 선종포교당은 각 도시에 건립하여 일반대중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였다. 1914년경에는 전국적으로 불교신도 현황이 13,710명이라고 하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⁴⁹⁾

47) 앞의 책.

48) 「中央布敎堂 開校式」『每日申報』(1912.5.26.), p.3, 4단. (백용성 총서7, 103), “중앙포교당의기교식 설비가굉장하디시오 중부스동(中部寺洞)동디에, 시로설립호선림제중중앙포교당(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에서는, 본일하오삼시에기교식을성대히설링흔다는말은임의그지호얏거니와확실의창가와, 한룡운(韓龍雲)화상의취지설명, 빅룡성(白龍城)화상의설교, 정운복(鄭雲復)리능화(李能和)량지의찬연, 립빈의축스와, 기타제반설비에, 무전성성황을, 일울터이라더라.”

49) 「宗教之人, 寺洞 禪宗 中央布敎堂 禪師 白龍城 談」, 『每日申報』(1914.2.1), 1면 4단 (백용성 총서7, 105), “... 敎內現況으로는各地敎徒가一万三千七百十人으로漸次發展호니布敎와敎旨에益明努力코져호노라”

더 고무적인 것은 1912년 4월 6일자의 『매일신보』 「中央布教堂의 興學」 기사에 의하면,

중앙포교당의권학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주(朝鮮臨濟宗中央布教堂主), 한룡운화상(韓龍雲和尚)은 중부던동중등학교(典洞中東學校)의, 경비근난흡을익석이역이어서, 그학교를, 포교당에서유지하기로, 계약하고, 그학교위치는 임시포교소로, 스용한다 하며, 불교신도로, 포교하기에, 열심하던, 손완수(孫完秀)화상의추도회는, 한룡운백룡성(白龍城)여러화상의발기로, 본일하오삼시에중등학교안에서, 거행한다더라.⁵⁰⁾

조선임제종 중앙포교당의 주임인 한용운 스님은 중부 전동에 있는 중등학교(中洞學校)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애석하게 생각하여 중등학교를 조선임제종 포교당에서 유지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사동포교당 개원전에 임시 포교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때 손완수 화상이 주도하고, 한용운, 백용성 등 여러 스님들이 동참하여 임제종중앙포교당 개원 발기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는 조선불교임제종중앙포교당 부설학교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학교를 인수하여 임시포교당으로 사용하였으며, 젊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파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였고, 용성 스님은 참선으로 대중포교의 나침반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포교 방법이 대각선(大覺禪)임을 증명하고 있다. 용성 스님의 대각선 포교는 대각사의 부인선원 개설, 만일참선결사회 결성 등 실천적인 면과 문서로서 역경과 저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귀원정종』, 『각핵일륜』, 『심조만유론』, 『수심정로』, 『오도는 각』, 『오도의 진리』 등과 『조선글 원각경』, 『상역과해금강경』, 『선문촬요』 등 수많은 선수행 포교서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50) 「中央布教堂의 興學」 『每日申報』(1912,4,6), p.3, p.4(백용성 총서7, 103).

것은 모두 대각선(大覺禪)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3. 大覺教 운동 전개

용성 스님이 가장 즐겨이 사용한 단어는 대각(大覺)이다 『백용성 총서』에 대각이라는 단어는 654회 등장한다. 그러면 용성 스님이 대각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언제일까? 필자의 조사로는 1916년으로 추정되는 대각사(大覺寺)의 건립이라고 본다. 물론 대각사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1911년, 1914년, 1916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916년 설이 가장 유력하다. 1911년 설은 대각사 「대각교중앙본부 현존 물목록」의 필사본 기록이다. 한편 1914년 설은 『朝鮮の類似宗教』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16년 설은 「경선지방법원 예심판사 심문서」에 의하면,

문 : 성명은?

답 : 白相奎이다.(中略, 前例檢事局問答과 同一하므로)

문 : 피고는 어떤 절(寺)에 소속되고 있는가?

답 : 경상남도 협천 해인사의 승려로 있었고 그 후 범어사(梵魚寺)에서 경영하던 경성포교소에 있다가 53세 때부터 鳳翼洞 1번지에서 단독으로 있었다.⁵¹⁾

이 조서는 서대문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직접 신문한 내용이다. 1919년 7월 28일 2차에 걸친 신문이 있었던 것 같다. 1차 신문조서는 『三一運動秘史』에 게재된 것으로 『백용성 총서』에는 2차 신문만 실려 있다.

51) 李炳憲 編著,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p.137, “취조서 大正八年七月二十八日 於 西大門監獄에서, 豫審判事 永島雄藏, 書記 譚村仁兵衛.”

같은 날 訊問調書(2회)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秘史의 인용서는 1회 조서인 것 같다. 그 근거는 2회 조서에서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前回에 이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백용성 총서7, 373).

한보광, 『龍城禪師研究』, 甘露堂, 1981, p.17.

여기서는 직접 대각사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이때부터로 추정된다. 감옥에서 출옥 후에 봉익동 1번지의 대각사는 매각되고 없었으므로 가회동 211번지 강영균의 집에 있던 포교당으로 갔다가. 여기서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여 경전의 번역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朝鮮의 類似宗教』 「대각교 제칭 이유서」에 의하면,

대각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본교의 정신요소가 오로지 새롭구나. 대종교의 법이 멀지 않아 폐하게 될 것이니 부처님의 본회와는 맞지 않다. 그러므로 불교의 쇠퇴도 거울삼아야 한다. 만약 혁신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까 주야로 염려하다가 임술년(1922) 4월 8일에 처음으로 大覺教라고 명명하였다. 불교계 중에는 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많으나 동의하는 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연히 釋時鏡 스님을 만나 뜻이 계합되어 정묘년(1927) 중국 길림성 연변지방에 大覺教堂을 건립하여 民衆大覺化事業을 실시하였다.⁵²⁾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교의 정신요소가 오로지 새로워져야 한다.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대종교(大宗教)의 흥망을 보니 불교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고심 끝에 1922년 사월 초파일 불탄절에 대각교(大覺教)를 선포하였다. 넷째는 기존의 불교계가 반대하는 사람은 많고 찬성하는 사람은 적다. 다섯째는 그러나 석시경 스님과 뜻이 계합되어 중국 연변에 1927년 대각교당을 설립하였다. 여

52) 村山智順著, 崔吉城·張相彥 共譯, 「대각교 제칭 이유서」 『朝鮮의 類似宗教』,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p.328-329 (백용성 총서7, 389), “題稱大覺教者는 其義何在, 本教精神要素가 專在於革新而已니라, 自上古已來로 眞理의·道德의·哲學的·科學的·兼善的·慈悲的인 大宗教가 法久成弊하여 不合於佛文本懷하니 然則佛敎之衰退를 於斯에 可鑑矣로다. 若不革新이면 恐難扶持까지야 晝宵耿耿이라가 余任戌之夏四月初八日에 始稱大覺敎之名하니 佛敎界中에 不合余意者는 間有反對之端而同情者 | 亦不多也라. 以故로 余 | 歷盡萬般辛苦矣러니 偶與釋時鏡禪師로 心志相合故로 丁卯之春에 同入於中華吉林省 延邊地方하야 建立大覺敎堂하고 民衆大覺化事業을 實施하다.”

첫째는 그 목적이 민중대각화사업(民衆大覺化事業)임을 밝히고 있다.

대각사에서 대각교를 선포한 것은 1922년 4월 8일이고, 대중교의 쇠퇴를 보고 불교도 혁신이 없다면, 곧 쇠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각교(大覺教)를 제창하였지만, 불교계의 반대는 극심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석시경 스님을 만나 1927년 중국 연변에 대각교당을 건립하였는데 그 목적은 민중대각화사업이라고 한다. 즉 대각교의 목적은 민중대각화사업이다. 민중의 깨달음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자각(自覺)에서 각타(覺他)로 회향함이다. 용성 스님의 대각선의 화두는 바로 민중대각화사업이고, 수행방법은 참선포교였다.

또한 불교(佛敎)를 대각교(大覺教)라고 하며, 본각, 시각, 구경각이 원만하여 둘이 아닌 것이 대각이라고 한다. 본각은 일체중생 모두 갖추고 있는 본연성(本然性)이다. 시각(始覺)은 용맹정진하여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함이며, 구경각(究竟覺)은 완전히 깨친 것을 말한다.⁵³⁾

『三千里』 「나의 懺悔錄」에 의하면,

오늘날까지 내게는 조고만치한 財産도 없고 妻子와 家庭도 못 가졌었다. 七十年 동안 거러온길이 오로지 眞悟와 大覺만 차져 거러 왔었다. 그런데 合併 以後 政府에서는 佛敎徒들에게 男女間 婚姻을 許하여 주웠다. 이것은 부처의 참뜻에 어그러지는 바이다. 그 뒤 나는 憤然히 佛敎에서 물너나 「大覺教」란 一派를 따로히 形成시켰다.

「佛則大覺」이요 「大覺則敎」인즉 부처님의 말씀을 따름에는 佛敎와 아무런 差異가 없을지나 다만 結婚을 嚴禁하여 오는 것이 特色이라고 하겠다. 그러다가 그만 요사히에 와서 類似宗敎니 뭐니 해서 「大覺教」를 解散시켜야 한다는 當局의 處事에 어찌할 수 없이 또다시 佛敎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⁵⁴⁾

53) 위와 같음.

54) 「나의 懺悔錄」, 『三千里』 8권 12호, 1936, pp.82-85 (백용성 총서7, 82-84)

대각교를 창설하게 된 이유는 승려의 혼인을 허락함으로 대처화(帶妻化)된 불교와 달리하여 독신 비구 교단의 일파로 대각교라고 하였고 한다. ‘불즉대각(佛卽大覺)’이요 ‘대각즉교(大覺則教)’이므로 불교와 대각교는 전혀 다르지 않다. 단지 불교에서는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지만, 대각교에서는 승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독신 비구 교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말년에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정책으로 유사종교로 몰려서 대각교를 해산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사이비종교 이단을 류사종교라고 하여 탄압하였다.

나의 거러온 過去 七十年間을 回顧하면 어든 바 所得이 무엇인가? 내 空 碧一如한 胸中에는 또다시 六塵緣影이 어즈럽게 떠오른다.

나는 두 눈을 내려감고 正座한 뒤 參懺⁵⁵⁾을 始作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나 「大覺」이 되려도 아무래도 내 肉身이 죽어가기 전에는 이 뜻을 이루지 못할까부다.⁵⁶⁾

마지막에는 칠십여 년간 살아온 것을 회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정좌하여 참선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대각(大覺)을 이루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은 금생에 완전한 대각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생에 이를 것을

55) 참탄(參懺)을 참선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06월 01일)당대의 처사(當代處士) 찾아(2), 심우장에 참선하는 한용운씨(尋牛莊에 參懺하는 韓龍雲氏)를 차져, “記-이렇듯, 외로이 불당(佛堂)같은 데에 조용히 늘 계시니, 적적하시고 속 답답스러운 때가 간혹 잊지 않으신가요?”

韓 - 허허! 내게는 고적 「孤寂」이라든가 침울 「沈鬱」이라는 것이 통 없지요. 한달 잡고 내내 늘 조용히 앉아 있셔도 심심치가 않어요. 혹은 글을 쓴다든가 책을 보는 이외, 간혹 손이 찾아 오거나 하면 어찌 「바둑」이나 두고, 그박게 시간에는 틈만 잇스면 정좌「正座」하고 속념(俗念)에서 물러나 참선「參懺」하는 것이 나의 매일-의 가장 중요한 일과(日課)이니까요. 記- 「參懺」은 꼭 時間을 정하시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56) 앞과 같음.

발원하고 있다. 이것은 용성 스님의 솔직한 참회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용성 스님은 출옥 후 1922년 대각사에 대각교본부를 두고 중국 연변의 대각교당과 지리산 함양 백운산의 화과원 등 국내외에 다수의 지부를 개설하였다.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경전의 한글화와 저술에 전념하였고, 망월사에 만일참선결사회를 결성하여 참선에 주력하였다. 선농불교를 실천하여 자급자족하는 생산불교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원동력은 스스로 증득한 깨달음이었으며, 대각(大覺)을 사회화한 대각선(大覺禪)의 원천이다. 용성 스님은 자각(自覺)과 타각(他覺)을 아우른 대각선(大覺禪)을 실천하였다. 대각선의 화두와 목적은 민중대각화사업(民衆大覺化事業)에 두었다. 이를 위해 만든 공동체가 대각교(大覺敎)이며, 이론적인 정립이 대각사상이다. 민중대각화사업을 전개한 것이 대각교운동이다.

V. 맺음말

용성 스님(1864~1940)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출가 후 대각을 위하여 끊임없는 참회와 화두참구 및 경전의 열람 등을 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 일생동안 노력한 것이 대각교운동이다. 이러한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을 대각선(大覺禪)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용성 스님의 대각관은 어떠한 것인가. 경론상의 대각의 의미는 부처님을 뜻하기도 하며, 한편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면 용성 스님의 대각관은 무엇일까. 시각, 본각,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대각이라고 하고, 이는 자신의 깨달음인 자각과 그 깨달음을 사회화하여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각타를 구축하는 선(禪)을 대각선(大覺

禪)이라고 하였다.

둘째, 용성 스님의 대각선 사상이 정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먼저 산중수행에서 4차에 걸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사들은 여기에 만족하여 산중납자들이나 불자들에게만 전법을 하였다. 그러나 용성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 심지어 타종교인들에게 까지도 전법도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적극성이 있다. 그 1차 계기는 1911년 경성에 입성하여 교회와 성당을 둘러보고,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포교방법에 감탄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를 1차 대각선 사상 정립기로 볼 수 있다. 2차 계기는 1919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타종교인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포교방법을 보고 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는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과 찬불가의 보급 및 포교방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만약 용성 스님께서 서대문 감옥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출옥 후 많은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가 2차 대각선 사상 정립기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대각선의 실천이다. 대각선을 대중화, 민중화, 사회화하는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선포교의 대중화이다. 대각선은 누구나 깨닫게 하는 선이다. 그의 포교방법은 참선으로 포교하는 것이었다. 대각선의 화두는 민중대각화사업이었다. 마지막으로 대각교운동이다. 대각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각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각 곳에 대각교당을 세우고, 그 목적을 민중대각화사업에 두었다.

따라서 용성 스님은 대각을 성취한 대각인(大覺人)으로 대각사상을 정립하고, 대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조직화한 것이 대각교운동이다. 기본 바탕은 대각선이라는 독특한 선수행과 선포교방법인데 그 목적은 깨달음의 사회화인 민중대각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帝釋所問經』, 대정장1
 『雜阿含經』 권44, 대정장2
 『大乘本生心地觀經』, 대정장3
 『大乘本生心地觀經』 권8, 대정장3
 『大般若波羅蜜多經』 권306, 대정장6
 『金剛三昧經』 권1, 대정장9
 『觀普賢菩薩行法經』, 대정장9
 『護國尊者所問大乘經』 권1, 대정장12
 『大般涅槃經』 권32, 대정장12
 『阿毘達磨集異門足論』 권5, 대정장26
 天台智者大師說, 『仁王護國般若經疏』 권4, 대정장33
 天台智者大師說, 『四念處』 권4, 대정장46
 『傳燈錄』 권19, 「南嶽金輪可觀禪師條」, 대정장51
 『龍城禪師語錄』, 권상, 백용성 총서1
 『歸源正宗』 권하, 백용성 총서1
 『심조만유론』, 백용성 총서2
 『각해일륜』, 백용성 총서2
 『詳譯科解金剛經』, 백용성 총서3
 『팔상록』, 백용성 총서4
 『대방광원각경』, 백용성 총서4
 『조선글 화엄경』, 백용성 총서6
 高橋亨 著, 『李朝佛教』, 「第四節 帶妻解禁」, 國書刊行會, 昭和 48年
 「中央布教堂 開校式」, 『每日申報』 1912.5.26
 「나의懺悔錄」, 『三千里』 8권 12호, 삼천리사, 1936, 백용성 총서7
 『東亞日報』 1925.10.31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6월 1일
 村山智順著, 崔吉城·張相彦 共譯, 「대각교 제칭 이유서」, 『朝鮮의 類似宗
 教』,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宗教之人, 寺洞 禪宗 中央布教堂 禪師 白龍城 談」, 『每日申報』 1914.2.1.

- 한보광, 『龍城禪師 研究』, 감로당, 1981.
- _____, 「龍城스님의 前半期の 生涯」, 『대각사상』 창간호, 대각사상연구원, 1998.
- _____, 「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각사상』 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 _____,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 _____, 「백용성스님의 민족운동」, 『대각사상』 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
- _____, 「백용성스님과 연변 대각교당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Abstract

A Study of Baek Yongseong's Teachings about Great Enlightenment Meditation (大覺禪)

Han, Tae-sik(Ven. Bo-kwang)
(Director, Institute of Maha Bodhi Thought)

The life of Venerable Baek Yongseong is defined by his unwavering pursuit of Great Enlightenment(大覺). After renouncing secular life, he dedicated himself to endless repentance, hwadu concentration, and scripture reading to attain Great Enlightenment. Following his enlightenment, he devoted his life to practicing the Dharma and founded the Movement of the Religion of Great Enlightenment, driven by his passion for Great Enlightenment Meditation.

First, what is Yongseong's view of the Great Enlightenment? The meaning of Great Enlightenment in the Buddhist scriptures means Buddha; on the other hand, it symbolizes Buddha's enlightenment. He construed the concept of Great Enlightenment as the realization and culmination of innate enlightenment(始覺), primal enlightenment(本覺), and ultimate enlightenment(究竟覺). This interpretation led Yongseong to define Great Enlightenment Seon as Seon(禪), emphasizing the amalgamation of personal enlightenment, self-realization, and the practice devoted to guiding others toward similar levels of enlightenment.

Second, w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Yongseong's philosophy of Great Enlightenment Seon? The four stages of enlightenment achieved through mountain meditation were the basis. His proactive approach aimed to impart teachings not only to Buddhists but also to non-Buddhists and followers of different faiths. Interactions with various religious representatives in Gyeongseong's churches and cathedrals reinforced his

commitment to advancing Buddhism through meditation and propagation. This marked the initial phase of establishing the ideology of Great Enlightenment Seon. His involvement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led him to reside in Seodaemun Prison alongside 33 representatives from diverse religions, enabling him to study their religious practices and missionary methods. This period marks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phase of Great Enlightenment Seon thought, evolving notably due to his experiences in prison.

Third, he emphasized the practice of Great Enlightenment Seon. By popularizing the Great Enlightenment Seon, he sought to socialize enlightenment. Also, he emphasize the popularization of seon practice propagation. The topic of Great Enlightenment Seon was the project to enlighten the people. Lastly, he founded the Religion of Great Enlightenment Movement. He created a community called the Religion of Great Enlightenment to practice Great Enlightenment Seon.

To summarize, his legacy as a great guardian of Great Enlightenment lies in his establishment of the Great Enlightenment thought, development of the Great Enlightenment Movement, and the organization of the Religion of Great Enlightenment. His unique meditation practice and propagation teachings were the foundation of this movement, with the ultimate goal being the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Daegak-sa temples were erected in numerous locations to support the Project of the People's Great Enlightenment.

Key words

Baek Yongseong, Great Enlightenment, Enlightening Oneself Realizing(自覺), Enlightening Others(覺他), Great Enlightenment Meditation, Daegak-sa Temple(Monastery of Great Enlightenment), Great Enlightenment Thought, Movement of establishment of the Religion of Great Enlightenment, Project of the People Great Enlightenment(民衆大覺化事業), Hwadu(話頭), Meditation, Propagation by Meditation, Hwagwa-won(華果院)

논문투고일 : '23. 10. 19. 심사완료일 : '23. 11. 22. 게재확정일 : '23. 11. 22.